

六陳良藥에 관한 문헌고찰

안지영^{1#}, 권동렬^{2*}

1 :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 2 : 원광대학교 약학대학 원광한약연구소

The Literature Study of Yukjin, good long-term storage of the six oriental medicinal herbs

Ji-Young Ahn^{1#}, Dong-Yeul Kwon^{2*}

1 : Dept. of Oriental Medicine & Healthcare, Wonkwang Digital University, Iksan, Jeonbuk 570-749, Korea

2 : College of Pharmacy and Wonkwang-Oriental Medicines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ity, Iksan, Jeonbuk 570-749, Korea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xamine the oriental medical term 'Yukjin(in chinese, liùchén)' i.e. 'good long-term storage of the six oriental medicinal herbs'. Yukjin has meant the six sorts of drugs which were well known for the older they stored, the better efficacious they were.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to obtain more conclusive information about the time and the reason of the giving a naming Yukjin, and to arrange Yukjin's properties, toxicities and processes.

Methods : We investigated the documents recorded in the medical classics of Yukjin and did the current issues and recent experimental researches of these medicines.

Results :

1. The properties and flavors of Yukjin are pungent and bitter. When they were stored for a long time after gathering, their toxicities and stimuli were growing thinner, regarded as positive clinically with age and they should be used after processing.

2. The efficacies of Yukjin are not always in proportion to storage period. In case, they are stored too long, their efficacies and qualities may be deteriorated though volatility or pungent flavors are enfeebled.

Conclusions : Consequently, toxicities and strong flavors of Yukjin can be reduced in various processes. So the traditional theory of long-term preservation is not necessarily retained. It may be desirable to store them for 1 to 3 years after harvest, to safen their toxicities and adverse reactions in the way of processing. If we use them properly according to oriental medicine method, it will be effective on treating and preventing the various diseases.

Key words : Yukjin(六陳, Good long-term storage of the six oriental medicine).

서 론(02)

六陳, 六陳良藥, 六陳八新 등 육진은 한의학에서 널리 사용하는 용어로, 오랜 시간 저장해 두었다가 사용하면 좋은 여섯 가지 한약을 가리키며 半夏, 麻黃, 枳實(또는 枳殼), 陳皮, 狼毒, 吳茱萸 등이 여기에 속한다. 오늘날 포제학은 한의학에서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한약재를 수확한 후에 정제, 건조와 절단을 거쳐 약재를 보관하는 단순하고 초보

적인 포제의 전처리 방법에서부터 水製, 火製, 水火共製 등의 방법으로 한약을 가공하는 다양한 포제법을 포함하고 있다. 포제학에서 한약재의 저장은 가장 초보적인 가공단계라고 할 수 있다. 六陳이라는 용어는 《新修本草》¹⁾에 처음 등장하는데 그 이전에도 《神農本草經》²⁾에서 한약의 新舊를 이야기하였고, 《本草衍義》³⁾에서는 더 나아가 眞僞와 陳新이 서로 섞이면 오히려 약효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오늘날에도 관습적으로 한의학에서 육진에 대해 배우고 있지만,

*교신저자 : 권동렬,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약학대학 한약학과 본초학교실

· Tel : 063-850-6802 · E-mail : sssimi@wku.ac.kr

#제1저자 : 안지영,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디지털대학교 웰빙건강학부 한방건강학과

· Tel : 070-7730-0078 · E-mail : annjy314@wdu.ac.kr

· 접수 : 2012년 10월 10일 · 수정 : 2012년 11월 3일 · 채택 : 2012년 11월 7일

이 여섯 가지 한약을 별도의 명칭으로 규정된 근거를 찾는 연구나 한약사용에서 장기저장 후 사용하는 방법이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였다. 이에 저자는 본 연구에서 육진 용어의 기원, 약물 특성, 포제법 등에 대해 고금의 문헌조사하여 육진의 기원, 역사를 찾고, 최근 연구 논문을 통해 육진 약물의 본초학적인 특성, 독성연구, 포제 전후의 약효 등의 특성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고찰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본 론

1. 육진 용어 기원

六陳에서 ‘六’은 약재의 개수를, ‘陳’은 장기간 묵혀 두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六陳은 채취한 후에 오랜 시간 저장하였다가 사용하는 여섯 가지 한약재를 가리키는 말이다. 李勇枝는 六陳의 역사적 기원을 말하면서 “……疏釋古云塵久也, 孫炎曰陳居之久, 久則生塵矣, 古者陳塵同也, 故陳爲久之義.”라는 《書盤庚》의 내용을 인용하여 ‘陳’은 ‘久’이고, ‘久’는 곧 ‘生塵’이라는 기록을 통해 한의학 용어인 六陳에서 ‘陳’이 곧 오래된 것, 묵은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¹⁾. 묵은 한약과 신선한 한약의 구별을 한 최초의 기록은 《神農本草經》²⁾이다. “……土地所出, 眞僞陳新, 并各有法…….”이라고 하여한 부분으로 한약에 陳이라는 한자를 처음 사용하였는데 여기에서 특정한 한약을 지칭하여 지적한 것은 아니지만 한약재의 대조적인 특성을 구별하여 眞, 僞, 陳, 新을 제시하면서 약재의 특성에 맞게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다. 또 《本草衍義》³⁾에서는 “……辨方宜之早晚, 眞僞相亂, 陳新相錯, 則曷由去道人陳宿之蠱…….”라고 하여 眞僞와 陳新이 서로 섞이면 오히려 약효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과 같이 독성학이나 포제학이 발전하지 못했던 당시에 한약에 의한 중독 사고가 일어난 경험을 토대로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약물의 중독 사고는 약물 사용에 대한 주의력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에 따라 약물의 진품, 위품을 구별하고 신선한 약물과 일정기간 저장을 해둔 약물을 구별하여 약물사용의 안전성을 높িয়ে 하였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장기간 저장한 후 사용하는 한약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최초의 의학서는 南北朝 梁代의 陶弘景(456~536년)의 《本草經集注》이다. 여기에는 “……凡狼毒, 枳實, 橘皮, 半夏, 麻黃, 吳茱萸皆欲得陳久者良, 其餘須新精.”라고 하여 여섯 가지 한약재를 六陳이라는 단어를 써서 모듬하지는 않았으나 구체적인 약재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후대 학자들은 陶弘景의 《本草經集注》를 六陳說의 가장 오랜 연원으로 간주하고 있다⁴⁾. 六陳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의서는 唐代·蘇敬 등의 《新修本草》이다¹⁾. 蘇敬 등은 여기에서 狼毒을 설명하면서 “……別本注云, 與麻黃, 橘皮, 半夏, 枳實, 吳茱萸爲六陳也.”라고 하였다. 이것이 六陳이라는 용어의 첫 등장이다. 《新修本草》에서 六陳의 뜻을 밝힌 이후 많은 의학자들이 六陳을 인용하고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대표적으로 唐代·蘇敬, 宋代·陳衍, 金元代·李東垣, 王好古, 明代·劉文泰, 李時

珍, 清代·汪昂, 近代·張山雷 등이 있다⁴⁾.

2. 고대 의학서에 기록된 六陳의 특성

(1) 의서의 기록

중국 최초의 본초서인 《神農本草經》과 梁代·陶弘景이 증보하여 註를 달아 만든 《神農本草經輯注》에는 六陳 약물이 모두 실려 있다. 《神農本草經》 上藥에 陳皮, 中藥에 麻黃, 吳茱萸, 枳實, 下藥에 半夏, 狼毒이 기재되어 있다 (Table 1).

Table 1. The records on Yukjin in 《Sinnongbonchogyeong》 and 《Sinnongbonchogyeongjipju》

藥物	《神農本草經》	《神農本草經輯注》
陳皮	味辛, 溫, 主胸中腹熱逆氣, 利水穀, 久服, 去臭, 下氣, 通神. 一名橘皮, 生川谷 (舊在果部, 非).	橘柚一名橘皮, 味辛溫無毒, 治胸中腹熱, 逆氣, 利水穀, 久服去口臭, 下氣, 通神明.
麻黃	味苦, 溫, 主中風, 傷寒頭痛, 溫病, 發表出汗, 去邪熱氣, 止咳逆上氣, 除寒熱, 破微堅積聚. 一名龍沙.	麻黃一名龍沙, 味甘溫無毒, 治中風, 傷寒, 頭痛, 溫病, 發表, 出汗, 去邪熱氣, 止咳逆上氣, 除寒熱, 破微堅積聚.
吳茱萸	味辛, 溫, 主溫中, 下氣, 止痛, 咳逆, 寒熱, 除濕, 血痹, 逐風邪, 開痰 (舊作脹, 《御覽》作濇, 是) 理, 根: 殺三蟲, 一名, 生山谷.	吳茱萸一名藟, 味辛溫有小毒, 主溫中, 下氣, 止痛, 欬逆, 寒熱, 除濕, 血痹, 逐風邪, 開痰理.
枳實 (枳殼)	味苦, 寒, 主大風在皮膚中, 如麻豆苦痒 (《御覽》作癢, 非), 除寒熱結, 止利 (舊作痢, 《御覽》作利, 是), 長肌肉, 利五臟, 益氣軟身, 生川澤.	枳實味苦寒無毒, 治大風在皮膚中, 如麻豆苦痒, 除寒熱結, 止利, 長肌肉, 利五臟, 益氣輕身.
半夏	味辛, 平, 主傷寒寒熱, 心下堅, 下氣, 喉咽腫痛, 頭眩胸脹, 咳逆腸鳴, 止汗, 一名地文, 一名水玉 (以上八字, 原本黑字), 生川谷.	半夏一名地文, 一名水玉, 味辛平有毒, 治傷寒, 寒熱, 心下堅, 下氣, 喉咽腫痛, 頭眩, 胸脹, 欬逆, 腸鳴止汗.
狼毒	味辛, 平, 主咳逆上氣, 破積, 飲食寒熱, 水氣, 惡創, 鼠, 疽蝕, 鬼精, 蟲毒, 殺飛鳥, 走獸, 一名續毒, 生山谷.	狼毒一名續毒, 味辛平有大毒, 治欬逆上氣, 破積聚, 飲食寒熱, 水氣, 惡瘡, 鼠瘻, 疽蝕, 鬼精, 蟲毒, 殺飛鳥走獸.

《神農本草經》에서는 六陳의 성미와 약효 등을 기록하고 있으나 장기간 저장이 좋다는 내용은 없다. 그러나 이후 출간된 의학서에는 六陳이 장기간 저장할수록 좋다는 내용들이 등장한다(Table 2). 약재의 특징마다 陳, 久 등의 형용사를 사용하여 저장 기간이 길수록 약효가 좋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六陳 약물의 분류에서 枳殼 대신 枳實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예전에는 枳殼과 枳實을 동일한 기원 식물로 보았고 枳殼은 성숙 열매, 枳實은 미성숙 열매라고 하였다⁵⁾. 《新修本草》에서 “……今醫家以皮厚而小者爲枳實, 完大者爲枳殼, 皆以翻腫似盆狀口, 陳久者爲勝.”이라고 하였으며 清代·汪昂은 “……皮厚而小爲枳實, 殼薄虛大爲枳殼, 陳者良”이라고 하여⁶⁾ 枳實, 枳殼의 외형상의 차이만을 이야기하였고, 《本草衍義》에서 枳實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枳殼枳實一物也, 小則其性酷而速, 大則其性詳而緩, 故張仲景治傷寒倉卒之病, 承氣湯中用枳實, 此其意也, 皆取其疏通決泄, 破結實之義, 他方但導敗風壅之氣, 可常服者, 故用枳殼, 其意如此.”^{1,3)}라고 하여 枳實, 枳殼은 같은 종류의 약물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枳殼과 枳實의 기원 식물을 다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둘 다 미숙과실을 사용한다고 규정⁷⁾하고 있다. 枳實과 枳殼은 모두 理氣藥으로 사용하고 있

나 기원이 다르고 용도가 다른 약재이므로 임상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2. The records on Yukjin in Medical Classics

韓藥材	書名	內容	書名	內容
陳皮	《本草經集注》 《湯液本草》	橘皮療氣大勝……須陳久者爲良 色紅故名紅皮，日久者佳，故名陳皮	《本草綱目》 《本草略要》	他藥貴新，唯此貴陳 陳久者良，故名陳皮
半夏	《本草經集注》	以肉白者爲佳，不謂陳久	《本草圖經》	以圓白陳久者爲佳
吳茱萸	《本草經集注》	陳久者良	《本草略要》	陳者良
枳實 (枳殼)	《本草經集注》 《本草圖經》	用以陳者爲良 須陳久者爲勝	《本草略要》	陳者良
麻黃	《本草經集注》	凡狼毒，枳實，橘皮，半夏，麻黃，吳茱萸皆欲得陳久者。	《本草蒙筌》	麻黃……宜陳久年深
狼毒	《名醫別錄》	陳而沈水者……		

(2) 六陳歌 고찰

약성가는 한약재에 대해 처음 의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은 종류의 본초를 암기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특히 육진을 익히는데 편리하도록 “六陳歌”가 생겨났다. “六陳歌”에 대한 초기 기록은 南宋·陳衍(萬卿)의 《寶慶本草折衷》이다. 이 책은 산실된 부분이 많고 현존하는 권수가 14권으로 매우 적은 분량으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六陳歌”의 기록은 다음의 세 가지 의학서의 기록이 있다. 첫 번째는 金代·張從正의 《儒門事親》에서⁸⁾ “藥有六味陳久爲良，狼茱半橘枳實麻黃”이라고 하여 “약 중에 여섯 가지는 오래 묵을수록 좋은데, 狼毒, 吳茱萸, 半夏, 橘皮, 枳實, 麻黃이다.”라는 기록, 두 번째는 金代·李東垣의 《珍珠囊指掌補遺藥性賦》(《雷公藥性賦》)²⁾에서 “枳殼陳皮半夏齊，麻黃狼毒及吳萸，六般之藥宜陳久，入藥方知奏效奇。(枳殼，陳皮，半夏，麻黃，狼毒과 吳茱萸 등의 여섯 가지 약은 오래 묵을수록 좋고 방제에 넣으면 그 효과의 기이함을 알 수 있다.)”라는 기록, 세 번째는 《醫方類聚》에서 “枳實，麻黃并半夏，橘皮，狼毒及吳萸，莫辭經歲空陳滯，入用逢知效自殊。(枳實，麻黃과 半夏，橘皮，狼毒과 吳茱萸는 오랜 시간을 공중에 매달아 묵혔다가 약으로 쓰면 그 효과를 자연히 알게 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여섯 가지 한약재만을 묶어 글자 수를 맞춰 가면서 六陳歌를 만들어 익히도록 한 것으로 볼 때 당시 의학계에서 六陳의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Table 3).

Table 3. The records on Song of Yukjin in Medical Classics

書名	內容
《儒門事親》	藥有六味陳久爲良，狼茱半橘枳實麻黃
《珍珠囊指掌補遺藥性賦》 《雷公藥性賦》	枳殼陳皮半夏齊，麻黃狼毒及吳萸，六般之藥宜陳久，入藥方知奏效奇
《醫方類聚》	枳實麻黃并半夏，橘皮狼毒及吳萸，莫辭經歲空陳滯，入用逢知效自殊

3. 최근 六陳의 연구

(1) 육진의 관능적 특성

한약의 기본 감별은 관능적 기준을 근거로 한다. 한약재

가 가진 고유 의 色, 香, 味로 판별하는데 이것은 약재의 품질을 결정하는 지표이기도 하면서 약효 발휘의 물질적 기초가 된다. 한약은 치료 작용에 있어서 그 한약이 가진 氣味가 매우 중요하며 韓醫藥學의 이론으로 보면 六陳은 일정한 공통적 성질이 있다. 대한약전에 기록된 육진 약물이 모두 특이한 냄새, 자극성, 쓴맛, 아린 맛, 마비감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어 관능적인 특징만으로도 일정한 방향성이나 자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Table 4), 아울러 본초학적인 특징에서도 吳茱萸, 半夏, 狼毒은 독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Table 5). 육진의 성미귀경은 대부분 辛溫熱하고 脾胃經으로 歸經하며, 그 효능이 行氣, 消痰, 散結, 降逆 한다는 점이다. 약성에서 溫熱한 것은 陽에 속하고 辛味 역시 陽에 속한다. 熱性은 약물의 성장력이 왕성하고 상행하는 기운으로 發熱, 興奮, 發汗, 刺戟 작용을 강력하게 나타내는 약물이고 溫性은 溫和, 強壯, 升提, 補陽, 開胃, 通經絡, 止瀉, 散寒, 體溫上升, 煖丹田, 祛痰, 安神, 理氣益氣, 行血止汗 작용을 나타낸다. 辛味는 체내에 들어가면 助陽, 發散, 利竅, 潤燥, 開腠理, 上升, 發汗, 健胃, 食慾增進 등의 작용을 하는데 辛溫熱한 약물은 陽氣를 지나치게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

Table 4. The organoleptic properties of Yukjin⁹⁾

韓藥材	性狀
陳皮	This drug has a characteristic odor, bitter taste and little irritating.
半夏	This drug has no smell at first and a little taste of the mucinous, later heavily stinging.
吳茱萸	This drug has a characteristic odor, taste peppery and later residual bitterness.
枳實	This drug has a characteristic odor, a bitter taste.
麻黃	This drug has weak odor, astringent taste and bitter, paralyzing properties.

Table 5. The pharmacognostic properties of Yukjin^{5, 13)}

韓藥材	內容			
	起源	性味	歸經	效能
陳皮	Rutaceae, <i>Citrus unshiu</i> Markovich[KP]	辛苦溫有毒	脾, 肺	理氣調中 燥濕化痰
半夏	Araceae, <i>Pinellia ternata</i> THUNB.[KP]	辛溫有毒	脾, 胃, 肺	燥濕化痰 降逆止嘔 消痞散結
吳茱萸	Rutaceae, <i>Evodia rutaecarpa</i> JUSS[KP]	辛苦熱小毒	肝, 脾, 腎, 胃	散寒行氣 燥濕止痛 消肝下氣 溫中止瀉
枳實	Rutaceae, <i>Poncirus trifoliata</i> RAFIN.[KP]	苦辛酸寒	脾, 胃, 大腸	破氣消積 化痰除痞
枳殼	Rutaceae, <i>Citrus aurantium</i> L.[KP]	苦辛酸涼	肺, 脾, 大腸	理氣寬中 行滯消脹
麻黃	Ephedraceae, <i>Ephedra sinica</i> Stapf[KP]	辛苦溫	肺, 膀胱	發汗解表 宣肺平喘 利水消腫 溫散寒邪
狼毒 ²¹⁾	Euphorbiaceae, <i>Euphorbia fischeriana</i> Steudel[KHP]	辛苦平	心, 肺	散結逐水 止痛殺蟲

(2) 六陳의 독성과 중독

《毒性本草》에 陳皮, 枳殼, 枳實을 제외한 나머지 麻黃, 吳茱萸, 半夏, 狼毒의 네 가지 약재의 독성을 기록하고 있

다(Table 6). 독성 성분이 있는 한약은 체내에 들어갔을 때 중독, 치사 등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최근 한약재의 품질 표준화 작업과 유효성분 평가 및 검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한약재 성분 분석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육진에 관한 최근 연구를 보면 枳實은 주성분인 poncirin과 naringin을 지표성분으로 선정하여 각종 분석기기로 분석을 진행한 것도 있고¹⁰⁾, 운향과 식물 5종의 성분 분석¹¹⁾, 陳皮류 한약재의 함량분석에 관한 연구¹²⁾ 등이 있고 문헌적 고찰에는 吳茱萸¹⁴⁾, 半夏의 독성¹⁵⁾에 관한 것이 있다. 최근 발표된 육진에 관한 독성 실험 보고를 살펴볼 때 六陳을 오래 저장할수록 약효가 월등히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하고 있다.

陶乃貴 등은 전통 한약의 이론을 근거로 六陳 한약을 독성 성분을 가진 狼毒, 半夏, 吳茱萸와 辛溫한 성미를 가진 陳皮, 枳殼, 麻黃의 두 부류로 구별하였다. 前者의 한약재는 포제를 통해서 그 강한 약성을 줄이는 것이 옳다고 하였고, 醋製狼毒, 生薑白礬製半夏, 甘草水製吳茱萸 등은 六陳 한약재가 가진 독성 성분을 줄이는 매우 중요한 포제 방법이라고 하였다⁶⁾. 後者는 주로 휘발성 정유를 가진 한약들로 휘발성 정유에는 자극성 휘발 성분과 비자극성 휘발 성분이 있다. 六陳은 모두辛烈하고 자극성의 휘발 성분을 가지고 있다. 휘발성 성분은 저장 과정에서 그 양이 줄기도 하고 포제 과정에서 완화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麻黃은 蜜炙를 하면 그 燥熱한 성질이 줄어든다. 뿐만 아니라 옛 사람들은 약을 달일 때 麻黃을 먼저 달여 그 거품을 없애는 것으로 燥한 성질을 줄였다. 陳皮는 水浸液에서 부실피질호르몬 양물질의 성분이 있는데 이것은 안정적이라서 가열을 통해서 파괴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煎湯液의 유효성분은 비휘발성 물질이다⁷⁾.

Table 6. Toxicity and Toxicology of Yukjin¹³⁾

韓藥材	毒性及毒理
半夏	小鼠腹腔注射半夏浸膏LD ₅₀ 相當于塊莖 13.142g/kg. 塊莖乙醇提取液 20g/kg. 大部分共濟失調死亡.
吳茱萸	Evoxetine對小鼠的LD ₅₀ 皮下注射爲705mg/kg. 靜脈注射爲135mg/kg.
麻黃	麻黃水提物小鼠腹腔注射, LD ₅₀ 爲650mg/kg. 小鼠口服麻黃碱的LD ₅₀ 爲400mg/kg.
狼毒	狼毒大戟所含樹脂刺激性亦很大, 可刺激皮膚, 粘膜起水泡, 使粘膜發炎, 滲出, 甚至出血.

육진의 과학적 검증에 연구로 半夏는 물추출액과 에탄올 추출액을 마우스에 복강주사하는 실험에서 반수치사량이 각각 13.142g/kg과 20g/kg으로 대부분 失調나 死亡에 이르렀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오수유는 Evoxetine을 마우스 피하주사와 정맥주사하는 실험에서 LD₅₀이 각각 705mg/kg, 135mg/kg으로 보고되었고 麻黃은 물추출을 마우스에 복강주사하는 경우 LD₅₀이 650mg/kg, Ephedrine을 구강투여하는 경우 LD₅₀은 400mg/kg으로 보고되었다. 아울러 狼毒이 함유하고 있는 수지는 자극성이 매우 커서 피부, 점막에 수포를 만들고 점막에 염증, 삼출을 발생시키고 심한 경우 출혈이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¹³⁾.

(3) 六陳의 貯藏과 炮製

독성 성분이 있는 한약은 체내에 들어갔을 때 예상치 못

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독성 성분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 독성 성분을 없애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채취한 약물을 비교적 장시간 저장하여 약물이 가진 독성이나 자극성의 휘발 성분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저장 시간을 길게 하는 것으로 독성 성분을 모두 없애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포제나 다른 한약과의 배합을 통해 그 독성을 줄일 수 있다.

육진 한약의 포제법에 관한 연구는 성분 분석에 관한 연구와 함께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¹⁶⁻²⁰⁾. 枳實, 半夏, 陳皮, 麻黃 등에 관한 연구는 약리, 약성, 성분 연구가 있고, 포제에 관한 연구는 吳茱萸, 枳實 등의 몇 편에 불과하다. 최근 六陳 한약재에 관한 약리, 약성, 성분 연구에 관한 실험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포제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半夏와 麻黃의 저장시간이 약리 효과에 미치는 실험 보고에 의하면 저장기간을 1년씩의 차이를 두고 실험한 경우 오래된 半夏는 祛痰작용이 현저히 증가하고 지해작용이나 독성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¹⁹⁾, 오래된 麻黃은 중추신경흥분 작용이 현저히 줄어들고 哮喘, 鎮咳 작용이 크게 줄어 장기간 저장이 약효에 미치는 영향이나 의미가 없다²⁰⁾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포제는 한약의 이화학적 성질과 기타 효능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六陳의 공통적 성질은 辛溫熱하여 發熱, 興奮, 發汗, 刺戟 작용을 강력하게 나타내는 약물로 陳皮, 枳殼, 枳實 등은 단순 초법만으로도 강한 방향성을 줄여줄 수 있고, 알칼로이드 성분을 가지고 있는 麻黃, 吳茱萸는 알칼로이드 성분을 줄여주는 포제 방법으로 강한 약성을 줄일 수 있다. 육진 한약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포제한 후에 변화되는 약효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The Effectiveness of Processed Yukjin Herbs⁷⁾

韓藥材	常用炮製法
陳皮	生陳皮 : 燥濕化痰, 痰濕咳嗽, 濕阻中焦 炒陳皮 : 脾胃氣滯, 脘腹脹滿, 嘔吐治療
半夏	生半夏 : 外用, 化痰止咳, 消腫散結, 瘡癰腫毒, 濕痰咳嗽 清半夏 : 燥濕化痰, 濕痰咳嗽, 痰熱內結 薑半夏 : 溫中化痰, 降逆止嘔
吳茱萸	生吳茱萸 : 外用, 祛寒燥濕, 口瘡, 高血壓症, 濕疹, 齒痛 甘草製吳茱萸 : 厥陰頭痛, 行經腹痛, 脘腹冷痛, 嘔吐吞酸, 寒濕脚氣, 五更泄瀉 鹽製吳茱萸 : 甘草製 同一 醋製吳茱萸 : 甘草製 同一
枳實	生枳實 : 破氣化痰, 痰滯氣阻胸痞, 痰飲咳嗽, 眩暈 麩炒枳實 : 消食化痰, 理氣, 食積胃脘痞滿, 積滯便秘, 濕熱瀉痢
枳殼	生枳殼 : 行氣寬中除脹, 氣實壅滿, 胸腹脹痛, 脇肋脹痛, 癱滯疼痛 麩炒枳殼 : 理氣消食, 健脾, 食積痞滿, 脇肋疼痛, 下痢便血, 皮膚瘙癢
麻黃	生麻黃 : 發汗解表, 利水消腫, 風寒表實證, 風水浮腫 蜜麻黃 : ephedrine含量減少, 宣肺定喘, 肺氣壅滯, 咳嗽氣喘
狼毒	生狼毒 : 外用, 殺蟲 醋狼毒 : 痰飲積滯, 心腹疼痛, 咳逆氣喘

결론

이상의 여러 문헌을 고찰하여 육진양약에 대한 명칭의 기원, 약물의 특성, 저장 전후의 변화, 포제활용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육진의 기원은 《神農本草經》에서 그 의미를 이야기했고, 후대 학자들은 陶弘景의 《本草經集注》를 六陳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여기에 속하는 약재를

나열하고 있으며 唐代·蘇敬 등의 《新修本草》에서 최초의 의학 용어로 사용하였다.

2. 육진은 크게 吳茱萸, 半夏, 狼毒, 麻黃과 같이 과량 복용하면 중독 증상을 나타내는 종류와, 陳皮, 枳殼, 枳實 등 운향과 식물에 속하면서 독특한 방향성분을 가진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장기간의 저장을 통해 한약의 辛酸燥熱한 성질이 減弱되는 것을 先人들은 임상 경험을 통해 체득하였다.
3. 吳茱萸, 半夏, 狼毒, 麻黃과 같이 식물 알칼로이드를 함유하고 있는 약물은 과량 복용하면 중독 증상을 나타낼 수 있어 반드시 포제가 필요하고 陳皮, 枳殼, 枳實은 플라보노이드 등의 성분으로 독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방향성분을 줄이면 破氣 작용이 줄어들어 溫和한 行氣藥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육진 약물을 임상에서 사용할 때 적절한 포제법을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된다.
4. 六陳 약물을 장기간 저장하는 것은 오히려 약재의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과거의 관행을 맹목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며, 다양한 포제 방법을 이용하여 약재의 독성이나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 옳으며 적용하는 질병에 따라 규정된 용량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된다.

감사의 글

이 연구는 2012년도 원광디지털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Li YZ. Preliminary Stud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liùchén". J Qinghai Medical College. 1990 ; 26(2) : 141-2.
2. Cao BJ. Great Chinese Medical Books (X)-ShenNongBenCaoJing. Beijing :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Press, 1997 : 68.
3. Kou ZS. BenChaoYanYi. 1st rev. ed. Seoul : Euseongdang. 1994 : 3.
4. Zheng GM, Zou JL, Qu JP, Zhang SH, Li YZ.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liùchén Preliminary Study. J Shandong College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1 ; 15(1) : 20-5.
5. Professors of galenic pharmacy in the department of Oriental Medicines. Korean Galenic Pharmacy. 4th rev. ed. Seoul : Younglimsa. 1998 : 350-1.
6. Tao NG, Zhang ZY. Old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liùchén is not good. ShiZhenGuoyiGuoyao. 2004 ; 15(10) : 714.
7. Kang BS, Seo BI, Choi HY.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Processes & Clinical Applications. 2nd rev. ed. Seoul : Younglimsa. 2007 : 369-73.
8. Chen GR. The Discussion of "liùchén". J Shandong College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8 ; 17(1) : 36.
9. KFDA. The Korean Pharmacopeia(IX). 8th rev. ed. Seoul : Shinilbooks. 2008 : 1103-249.
10. Hwang GS. Analytical study on the flavonoid of *Poncirus trifoliata*. The Korean J Oriental Prev Med. 1997 ; 1(1) : 55-8.
11. Nugroh A, Park MG, Jin SE, Choi JS, Park HJ. Quantitative Analysis of Flavanone Glycosides and Peroxynitrite Scavenging Effect of the Five Oriental Medicinal Drugs (Aurantii nobilis Pericarpium, Citrii unshiu Pericarpium, Citrii unshiu Semen, Aurantii Fructus, Poncirii Fructus). Korean J Pharmacog. 2009 ; 40(4) : 370-5.
12. Ham IH, Jung ED, Lee KJ, Lee JH, Bu YM, Kim HC, Choi HY. Analysis of the Content of Hesperidin and Essential Oils from the Peels of Various Citrus Species. Korean J Herbol. 2008 ; 23(4) : 159-70.
13. Yang CL. Toxicity Materia Medica. Beijing :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Press. 3rd rev. ed. 1998 : 178-83, 686-91, 767-72, 1021-3.
14. Seo BI, Roh SS, Kim JD. A Philological Study on poisoning of Evodiae Fructus. J East West Med. 2008 ; 33(2) : 15-24.
15. Park JH, Seo BI. A Philological Study on poisoning of Pinelliae Rhizoma. J East West Med. 2000 ; 25(3) : 47-55.
16. Yuan YL. Processed Chinese medicine reasonable nature and its efficacy. Modern medicine and health. 2009 ; 25(14) : 2190-1.
17. Kim JS, Kim HJ, Ma JY, Kim JM. Studies on the Processing of Herbal Medicines(II) - HPLC Analysis of Standard Compounds of Unprocessed and Processed Herbal Medicines. Korean J Pharmacog. 2002 ; 33(4) : 305-7.
18. Park SH, Lee WJ, Choi HJ, Song BW, Kim DH, Kim NJ. Studies on the Processing of Crude Drugs(VIII) : The Changes of Physico-chemical Parameter and Biological Activities by Processing of Evodia Fruit. Korean J Pharmacog. 2005 ; 36(2) : 102-8.
19. Zou JL, Zheng GM, Zhang SH, Qu JF, Hiroshi S. Experimental study of "liùchén" (I) - The impact of storage time on the pharmacological effects of Pinelliae Rhizoma. J Shandong College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2 ; 16(1) : 54-5.
20. Zheng GM, Zou JL, Zhang SH, Qu JF, Hiroshi S. Experimental study of "liùchén" (II) - The impact of storage time on the pharmacological effects of Ephedrae Herba. J Shandong College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2 ; 16(1) : 57-8.
21. KFDA. The Korean Herbal Pharmacopoeia. Seoul : Dongwon. 2002 : 90-346.